

자동차 상품성, 지엠대우 원스톱 대반격

- 르노삼성, SM5와 New SM5 Top 10에 동시 진입
- 신차 강세 속 현대는 부진

국산차 중 상품성이 가장 뛰어난 모델은 지엠대우 원스톱으로 나타났다. 07년(8위)과 08년(5위) 2년 연속 Top 10에 포함되었으나, 09년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수모를 당했던 원스톱의 화려한 부활인 셈이다. 2위와 3위는 르노삼성의 SM7과 New SM5가 차지했다. 르노삼성은 4개 모델을 우수모델 10위 안에 포함시켰으며, 현대는 1개 모델에 그쳤다

상품성은 새 차의 기능, 성능, 디자인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지난 1년간(2009년 7월-2010년 6월 구입)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평가 받는 것이다. 측정 단위는 1,000점 만점으로 산출된다.

올해 상품성 비교 대상에 포함된 28개 모델 중 1위는 지엠대우의 원스톱이었다. SM7은 원스톱에 불과 1점 차이로 아쉽게 2위를 차지했다. New SM5는 출시되자마자 3위로 산뜻한 출발을 하게 됐다[표 1]. 전년도 1위였던 현대 제네시스는 올해 4위로 주춤했고, 기아의 오피러스는 전년(8위)보다 3단계 상승한 5위를 차지했다. SM7, 제네시스, 오피러스, SM5, 라세티 프리미어, 토스카 등의 6개 모델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Top 10에 올랐다.

[표 1] 2010년 상품성 우수 모델 Top 10

순위	모델	제조사	상품성 점수(1,000점 만점)
1	Winstorm	지엠대우	632
2	SM7 *	르노삼성	631
3	New SM5(L43) †	르노삼성	625
4	Genesis *	현대	617
5	Opirus *	기아	616
6	SM5 Impression *	르노삼성	611
7	Lacetti Premiere *	지엠대우	606
8	K7 †	기아	603
9	Tosca *	지엠대우	588
10	New SM3 †	르노삼성	574

* '09년도 Top 10 모델 / † 09년 하반기 이후 출시 모델

주) 2010년 조사에서는 '09년 하반기부터 '10년 상반기에 판매된 승용차 중 최소 적정 표본수가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이경석 부장 Tel. 02) 6004-7612 Fax 02) 543-5984 e-mail: leeks@mktinsight.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3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 www.mktinsight.co.kr, www.panelinsight.co.kr

60사례 이상인 28개 모델이 비교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례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모델과 2010년 상반기에 출시된 모델(예: 기아 K5)은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작년 하반기에 새롭게 출시된 르노삼성의 New SM5, New SM3, 기아의 K7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며 Top 10에 진입했다.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현대의 YF쏘나타와 투싼iX는 10위권 밖에 머물며 신차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상품성 Top 10 모델의 제조사를 살펴보면, 상품성 1위 회사[[보도자료 10-02호 참조](#)]인 르노삼성이 4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SM5 시리즈는 기존 모델과 후속 모델이 동시에 Top 10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그 뒤로 지엠대우가 3개, 기아 2개, 현대 1개씩 상위 10위 모델에 포함됐다.

Top 10 모델을 차급별로 보면 중형(New SM5, SM5, 토스카)이 3개로 가장 많았고, 초대형(제네시스, 오피러스), 준대형(SM7, K7), 준중형(라세티 프리미어, New SM3)이 2개씩이었으며, SUV(윈스톤)가 1개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상품성에 대한 평가는 대형 고가차가 높고, 소형 저가차가 낮은 경향이 있다. Top 10에 소형차나 경차가 없다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최근 중형차 못지 않은 기능이나 성능을 갖추며 작년 Top 10에 4개의 모델(라세티 프리미어, i30, SM3 CE, 포르테)이 진입했던 준중형 차급은 올해 2개로 줄었다. 지엠대우 라세티 프리미어는 준중형급이면서도 2년 연속 600점대를 넘으며 선전했다.

반면, SUV는 작년(2위 QM5)에 이어 올해(1위 윈스톤) 역시 최상위권에 1개의 모델만을 포함시키는 데 그쳐, Top 10에 4개 모델이 포함되었던 08년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다.

차급별로 보면, 경차 부문에서는 지엠대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기아 모닝보다 상품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품질에서의 부진을 만회했다[[보도자료 10-05호 참조](#)]. 소형 부문에서는 기아 프라이드가 현대 베르나보다 우위에 섰다[표 2].

[표 2] 2010년 상품성 차급별 우수 모델

차급	모델	제조사	상품성 점수 [1,000점]	비교 대상 모델* (알파벳 순)
경차	Matiz Creative	지엠대우	523	Morning
소형	Pride	기아	529	Verna
준중형	Lacetti Premiere	지엠대우	606	Avante HD, Forte, i30, New SM3
중형	New SM5(L43)	르노삼성	625	Lotze, SM5, Tocsa, YF Sonata
준대형	SM7	르노삼성	631	Grandeur TG, K7
초대형	Genesis	현대	617	Opirus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이경석 부장 Tel. 02) 6004-7612 Fax 02) 543-5984 e-mail: leeks@mktinsight.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3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 www.mktinsight.co.kr, www.panelinsight.co.kr

중소형 SUV	Winstorm	지엠대우	632	Santa Fe, Sorento R, Tucson iX
미니밴	Soul	기아	544	Grand Carnival, New Carens

* 비교 대상 모델은 적정 사례수(60사례) 이상인 모델만 제시(2010년 상반기 출시 모델 제외)

※ 대형 SUV는 사례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모델이 많아 차급별 Best 모델 선정에서 제외함

준중형에서는 라세티 프리미어가, 중형과 준대형 부문에서는 르노삼성의 New SM5와 SM7이 각각 동급에서 우수 모델로 나타났다. 현대 제네시스는 기아 오피러스를 1점 차이로 제치고 초대형 부문 우수 모델로 뽑혔다. 중소형 SUV 부문에서는 윈스툼이, 미니밴 부문에서는 기아 쏘울이 각각 우수 모델로 나타났다.

차를 사용하면서 경험한 결함이나 문제점 수를 세는 품질지표와 달리 상품성은 기능, 성능, 디자인 등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초기품질과 상품성 2개 부문에서 우위에 서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르노삼성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초기품질과 내구품질 등 품질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현대가 상품성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다소 뼈아프다. YF쏘나타와 투싼iX의 부진을 아반떼MD와 그랜저HG가 만회할 수 있을지가 내년 조사에서의 주요 체크포인트 중 하나다.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이경석 부장 Tel. 02) 6004-7612 Fax 02) 543-5984 e-mail: leeks@mktinsight.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3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 www.mktinsight.co.kr, www.panelinsight.co.kr

자동차리서치 전문회사인 (주)마케팅인사이트(www.mktinsight.co.kr, 대표: 김진국)는 2001년부터 매년 7월에 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기획조사를 실시해왔다. 본 내용은 2010년 7월에 온라인 E-mail 조사로 실시된 제10차 자동차기획조사(표본규모 106,291명)의 결과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본 '보도자료'는 (주)마케팅인사이트의 초대형 기획조사의 결과 중 발췌·요약한 것으로, 조사 내용과 결과, 분석에 대한 모든 권한은 (주)마케팅인사이트에 있으며, 사전 서면허가 없이 어떤 경우에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 설계의 개요]

- 조사 수행 기관: 마케팅인사이트(www.mktinsight.co.kr)
- 조사 성격: 기획조사(Syndicated study)
- 모집단: 전국의 e-mail 사용자 중 자동차 보유자
- 조사 시점: 2010년 7월
- 자료 수집 방법: 온라인 우편조사 (e-mail survey)
- 조사 규모 : 총 응답자 106,291명
자동차 보유자 101,159명

For more Information

문의: 이경석 부장 Tel. 02) 6004-7612 Fax 02) 543-5984 e-mail: leeks@mktinsight.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3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 www.mktinsight.co.kr, www.panelinsight.co.kr